

녹지도입에 따른 지하공간 이미지 변화에 관한 연구

시청 - 동대문운동장 구간의 지하보도를 중심으로

A Study on Image Changing of Underground Space Dependent on Introduction of Green

*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 상명대학교 환경조경학과

김선혜* · 방광자** · 이진희**

*Ph. D course, Graduate Sangmyung Univ.

**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Sangmyung Univ.

Kim, sun-hea* · Bang, Kwang Ja** · Lee, Jin Hee**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도심부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면에서 지하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지하보도, 지하철, 지하주차장 등의 시설을 중심으로 지하공간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주변의 지하상가 및 주변 건물, 백화점 등이 연계되어 지하공간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잘못된 지하공간의 개발로 인하여 활성화되지 못하고 슬럼화 되어가고 있다. 특히 외부와 부분 또는 완전히 차단되어 있는 지하공간에서 지상의 건축물 실내와는 다른 시각 환경이 형성되어 심리적·물리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지하공간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 지하철 역사 및 일부 지하철역의 지하공간에 실내환경 개선을 위한 슈퍼그래픽과 예술품 전시 그리고 녹지의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체계적이지 못한 설치로 인하여 지하공간의 이미지 및 쾌적성을 오히려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노후화되고 이용이 활성화되지 못한 시청 - 동대문운동장 구간 지하보도를 중심으로 녹지의 도입이 어떠한 이미지 개선 효과를 주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예술품 도입과 비교하여 녹지가 지하공간 이용자들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녹지 도입을 통한 지하환경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지 선정

본 연구의 대상지로 선정된 시청 - 동대문운동장 구간은 2.2km 지하보도로써 도심부에 위치한 입지적 조건에 비하여 이용이 미비하고 1, 2, 3, 4, 5호선 지하철역이 위치하였으나 시설이 노후화되어 지하철 이용을 제외한 다른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곳을 지하철 2호선 역을 중심으로 시청 - 을지로입구, 을지로입구 - 을지로3가, 을지로3가 - 을지로4가, 을지로4가 - 동대문 운동장 역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2. 연구방법

설정된 4구간을 중심으로 2차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조사는 대상지 현황 및 이용 목적, 공간에 대한 인식도 및 이미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각 구간마다 51부씩 204부를 조사하였으며 이중 응답이 50% 이하의 설문지 2부를 제외한 202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2차 조사는 각 구간에서 2장소를 선정하여 현황 사진에 예술품과 녹지를 각각 도입한 합성사진을 Photoshp 4.0을 이용 제작하여 대상지에서 각각의 사진을 보여주고 이미지 변화에 대하여 재 설문조사를 하였다. 각 구간마다 25부씩 총 100부를 조사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은 설문조사의 결과를 빈도 분석을 중심으로 통계처리하였으며, SAS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고찰

1·2차 설문 응답자 중 남성은 45.8%, 여성은 54.2%이고 연령별로는 10대가 20.4%, 20대가 37.8%, 30대가 18.9%, 40대 이상이 22.9%로 주로 20~30대 연령층에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 2차 조사에서 응답자의 60%가 녹지 도입에

대하여 예술품을 도입(27%)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른 이미지 변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재의 대상지에서는 42.7%가 매우 폐쇄적이거나 폐쇄적이라고 대답하였으며 예술품을 도입한 경우에는 41%가 개방적이거나 매우 개방적인 느낌이 든다고 답하였으며 녹지 도입의 경우 과반수 이상인 53%가 개방적이거나 매우 개방적인 느낌을 갖는다고 하였다. 산만성의 경우 특히 43.6%가 현재의 공간에서 산만함을 느낀다고 하였으나 예술품 도입의 경우 48.0%가 정돈된 느낌을 받는다고 하였고 특히 녹지 도입의 경우 66%가 기존의 공간보다는 정돈된 느낌을 받는 것으로 나왔다.

대상지의 현재 실내 마감이 무채색의 단조로운 타일 마감으로 조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응답자의 64.4%가 지루한 공간이라고 답하였다. 예술품의 경우는 60%, 녹지의 경우는 71%의 응답자가 지루하지 않고 활기찬 느낌을 받는다고 하였다. 또한, 현재 대상지의 조도는 110~250lux로 일반 실내공간보다 어둡기도 하지만, 자연채광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느끼는 조도는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 이에 대상지에서 56%가 어둡다고 대답을 하였으며 예술품 도입의 경우는 63%, 녹지 도입의 경우는 76%가 밝다는 긍정적인 대답을 하였다. 특히 녹지의 도입의 경우는 생육용 조명이 설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지하공간의 조도를 높일 수 있다.

현재 대상지 지하공간에서 52.2%가 시끄럽다고 느끼고 있는데 이는 지하철의 진동과 소음, 환풍기 소음 그리고 출입구 지역에서 들려오는 외부 차량의 소음 때문이다. 예술품을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41.0%, 녹지를 도입하였을 때는 63%가 소음이 상쇄되는 이미지를 받았다. 응답자의 55.9%는 더럽다는 부정적 인식을 하고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대상지 전구간이 청결 상태가 매우 양호하며 지하철 공사와 지하상가 번영회에서 철저히 관리하기 때문에 이는 심리적 요인이 크다고 하겠다. 이 역시 예술품 도입과 녹지 도입시 각각 54%, 69%가 깨끗한 이미지라고 응답하였다.

더럽다는 부정적 인식 때문에 불쾌감 역시 75.8%로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예술품의 경우는 58%이고 특히 녹지의 경우에는 83%가 상쾌함을 느낀다고 답하였다. 또한 지하공간이라는 폐쇄성 때문에 45.6%가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하였으며 예술품 도입시에는 21%가 녹지 도입시에는 6%만이 불안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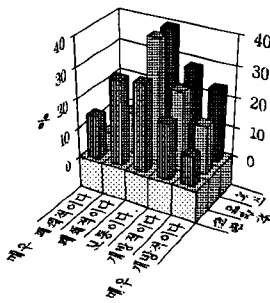


Fig1. 폐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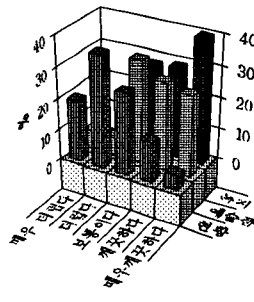


Fig2. 청결성

IV. 결론

지가가 비싼 도심에서 지하공간은 가장 적극적으로 이용되어야 할 도시시설로서 앞으로 개발가능성이 큰 공간이다 그러나 지하공간에서 인간이 느끼는 부정적인 심리 요소 때문에 적극적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용 역시 교통 수단이나 지하보도라는 기능적인 측면에서만 이용되어질 뿐이다. 이에 지하공간의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개발과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예술품과 녹지의 도입은 부정적 인식을 많이 해소시켜준다는 것을 알았다. 특히 녹지의 경우 자연채광과 조망이 없는 지하공간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게 함으로써 부정적 인식을 많이 해소시킬 수 있다. 이러한 녹지 도입을 통한 지하공간 실내의 환경개선은 지하공간 개발과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